

肝鬱形으로 변증된 갱년기背痛환자의 加味逍遙散加味方 치험 1례

이귀희¹ · 유동열^{1*}

A Case report of menopausal disorder patient who had back pain
treated with Kamisoyosan-gamibang

Lee Gui-Hee¹ · Yoo Dong-Youl^{1*}

¹Dept. of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Purpose: This paper is aim to report the effects of Kamisoyosan-gamibang (加味逍遙散加味方) on the back pain patient who was diagnosed gan-ul(肝鬱).

Methods: A Woman, 48 years old, who had back pain, was enrolled in this study. She received herbal medicine for several months. During the treatments, we requested her to visit hospital every two weeks.

Results: After the treatments, back pain was decreased.

Conclusion: This clinical case indicate that Kamisoyosan-gamibang is effective in treatment of menopausal disorder patient who had back pain. More clinical data and studies are requested for the treatment of menopausal disorder.

Key Words: Kamisoyosan-gamibang, back pain, menopausal disorder.

I. 서론

갱년기란 가임 말기에 여성의 생식능력이 소실되는 전환시기, 즉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이 시기에 수년에 걸쳐서 난소의 기능저하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특정호르몬의 변화와 잇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초

래되는데, 이로 인해 안면홍조, 발한, 불면, 비뇨생식기의 위축, 역울감, 정신불안정,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양한 개인차를 가지는데, 이를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한다¹⁾.

과거 여성들에 비해 현대 여성은 비약적인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96% 정도가 폐경을 경험하며²⁾ 폐경에 따른 갱년기 구간을 지나게 된다. 그러나 갱년기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현대

* 교신저자 : 유동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E-mail : ydy1010@dju.kr
접수일 : 2011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1년2월8일

에 들어서야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갱년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³⁾.

한의학 고대문헌에는 갱년기 장애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素問·上古天真論』⁴⁾에는 “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七七任脈虛太冲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라고 하여, 갱년기의 생리를 언급하고 있고⁵⁾, 갱년기 장애의 범주를 臟燥症, 白合病, 梅核氣, 瘀血, 上衝, 奔豚, 天癸過期, 生老血崩, 生老經水復行 등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현대 중의학에서는 更年期綜合證, 經斷前後諸症, 絕經期症候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⁶⁻⁹⁾.

신의 陰虛와 陽虛가 갱년기증후군의 기본적인 病因, 病機이지만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肝鬱, 心肝火旺, 心腎不交, 脾心兩虛, 血瘀등도 빼놓을 수 없는 病因. 病機들이다⁵⁾. 이에 논자는 최근 본원을 방문한 환자 중, 肝氣鬱結증상과 함께 심한 背痛을 보이는 갱년기 증후군 환자에게 加味逍遙散加味方을 투여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은 임상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증례

1. 이름 : 김 ○○

2. 성별/ 나이 : 여/48세

3. 주소증

1) 全身痛 : 특히 肩痛 및 背痛 極甚. 등에 늘 뒤틀어 붙어있는 듯한 느낌. 전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날 아침 背痛이 더 심해짐

2) 便秘 : 심하면 1주일 이상 못볼 때도 있음

3) 었드렸다가 일어나면 胸部에 刺痛이 오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짐

4) 上熱感

5) 손저림

4. 발병일 : 상기 증상들이 폐경 전에도 종종 있었으나, 폐경(2010년 3월)이후 점점 더 심해져서 최근엔 背痛 때문에 잠을 깰 정도가 되었으며, 背痛으로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 정도

로 통증이 심하다. 특히 아침에 심함.

5. 산과력 : 2-0-0-2

6. 월경력

28일로 規則的이었으며, 2010년 3월 초 갑자기 폐경이 됨.

7. 현병력

48세, 150cm, 54kg의 서글서글하고 밝은 성격의 여환으로, 상기 증상들이 폐경이후에 급격히 진행되었음. 폐경이 급격히 진행된 감이 있음. 背痛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으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나았는데, 폐경이후 통증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최근에는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음.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자주 받았으나 크게 호전되는 감이 없어 한방치료 위해 내원하심.

8. 치료기간 : 2010년 10월 24일부터 약 2개월 정도

9. 초진소견

1) 피부색, 體格 : 면색은 창백한 편. 작고 마른 체형. 키 150cm, 체중 54kg.

2) 消化 : 괜찮음.

3) 食慾 : 보통.

4) 大便 : 변비 심함. 심할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5) 小便 : 보통

6) 口渴 : 물을 자주 마심.

7) 寒熱 : 더위를 좀 더 타는 편.

8) 汗 : 잘 안흘린다.

9) 睡眠 : 피곤해서 잠은 쉽게 들지만 背痛으로 깨면 다시 잠을 못잠.

10) 舌診 : 舌苔白, 치흔이 있다.

11) 腹診 : 심하 압통. 하복부가 늘 차다

11. 투여처방

白芍藥 6g, 葛根 6g, 白朮 4g, 白茯苓 4g, 柴胡 4g, 當歸 4g, 麥門冬 4g, 牡丹皮 4g, 梔子 4g, 甘草 4g, 薄荷 4g, 黃芩 4g, 香附子 4g, 青皮 4g, 乾地黃 4g, 人蔘 2g, 枳殼 2g, 砂仁 2g

12. 치료경과

기간	0주	2주	4주	6주	8주
	투여	투여	투여	투여	
背痛	+++	++	+	+	±
不眠	+++	++	±	-	-
便秘	+++	+	+	+	±
下腹	+++	++	+	±	±
冷感	+++	+	±	-	-
胸部	+++	+	±	-	-
刺痛	+++	+	±	-	-

Ⅲ. 고찰

갱년기란 가임 말기에 여성의 생식능력이 소실되는 전환시기, 즉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기간을 지칭하는데, 폐경을 지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¹⁾. 계통적으로 폐경기는 44~55세에서 나타나는데, 최근 수명의 연장으로 폐경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¹⁰⁾. 이 시기에는 수년에 걸쳐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초래되는데, 안면홍조, 발한, 불면, 비뇨생식기의 위축, 역울감, 정신불안정, 불안감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을 초래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

양방에서는 갱년기 장애의 진단을 임상증상과 혈청 호르몬 농도의 변화 혹은 난소 생검을 이용하여 하고 있으며, 자율신경의 장애 증세를 줄이기 위하여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는데, 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용되고 있다¹¹⁾. 그러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자궁암 및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한방 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의학 고대문헌에는 갱년기 장애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素問·上古天真論』⁴⁾에는 “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七七任脈虛太沖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폐경 전후에는 腎氣가 점차로 쇠퇴하고, 天癸가竭하며, 衝任脈이虛하고

생식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臟腑의 기능이 점

점 쇠퇴하게 되므로, 신체의 陰陽均衡이 실조되어 질병에 이른다. 그러므로 更年期症候群은 腎虛가 그 病因 病機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실제 腎虛만으로 病因 病機를 적용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 신의 陰虛와 陽虛가 갱년기증후군의 기본적인 病因, 病機이지만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肝鬱, 心肝火旺, 心腎不交, 脾心兩虛, 血瘀등도 빼놓을 수 없는 病因. 病機들이다⁵⁾.

腎陰虛로 인한 증상에는 上熱感이 있고, 땀이 나며, 惡心煩熱, 頭暈耳鳴하며, 기억력이 감퇴되고, 피부가 가렵고 벌레가 기는 듯하다. 혹은 陰部가 乾澁하고 가렵다. 腎陽虛로 인한 증상은 손발과 몸이 차며, 浮腫이 잘 생기고, 대변이 무르게 나오며, 소변을 자주 보면서 失禁도 있다. 腎陰陽兩虛로 인한 증상은 눈과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울리며, 허리가 시리고 힘이 없으며, 손발이 차다. 상열감이 있고, 自汗, 盜汗이 있다. 心腎不交로 인한 증상은 가슴이 뛰고 잘 놀라며, 가슴이 번조로우면서 편안하지 않고, 잠이 적어지면서 꿈이 많아진다. 腰膝이 시리고 약해지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된다. 肝鬱로 인한 증상은 정신적으로 긴장되며,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가슴과 복부가 그득하고, 화가 잘 나며,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꿈을 많이 꾸고, 상열감이 있고 땀이 난다.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비에롭고 심한 경우 자제력을 잃거나 지남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心脾兩虛로 인한 증상은 가슴이 뛰며 숨길이 짧아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상열감이 있으며 땀이 난다. 얼굴이 잘 붓고 식욕이 없으며, 무기력하고 대변이 무르며 下血을 하기도 한다⁵⁾.

逍遙散은 宋代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傷寒論』의 四逆散에서 유래한 처방으로¹²⁾ 枳實을 去하고 當歸, 白朮, 白芍藥, 薄荷, 炮薑을 加味하여 疏肝과 동시에 健脾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逍遙散의 구성약물에서 柴胡는 疏肝解鬱로 肝氣를 條達하고 當歸는 養血行滯로 調經하며 白芍藥은 養血柔肝, 緩急止痛한다. 當歸와 芍藥을 合用하며 肝陰을 培養하고 肝氣를 疏散하여

肝血이 充盈하고 肝氣가 條達되므로 月經이 순조로워진다. 白朮, 茯苓은 健脾調氣하여 脾氣가 建運하고 氣血이 化生하며 薄荷는 芳香條達로 解鬱하므로 柴胡를 도와 疏肝한다. 甘草는 益氣和中, 緩急止痛하며 生薑은 辛散和胃行滯하므로 白朮을 도와 運脾한다¹³⁻¹⁶. 逍遙散에 牡丹皮와 梔子를 가미하여 丹梔逍遙散(加味逍遙散)으로 쓰기도 하고, 熟地黃 혹은 生地黃을 가미하여 黑逍遙散으로 쓰기도 한다¹⁷.

증례의 환자는 48세, 150cm, 54kg의 여환으로,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밝은 편이다. 주 증상은 폐경(2010년 3월)이후 점점 더 심해진 背痛으로, 최근엔 背痛 때문에 잠을 깰 정도가 되었으며,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아침에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背痛이 더욱 심해지며, 었드렸다 일어날 경우 胸部에 刺痛도 있다고 하였으며, 이 증상들은 폐경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28日 주기로 규칙적인 월경을 하였는데, 폐경이 갑자기 진행되어 월경이 중단되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자주 받았으나 크게 호전되는 감이 없어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여, 평소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 진단 결과 肝鬱로 辨別하여, 加味逍遙散 加味方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업관계상 매주 내원하지는 못하고, 2주에 한번 재진하였다.

상기 처방을 1일 2회 식후에 2주간 복용하였으며, 첫 재진시 약간 호전되어 재투여를 결정하였고, 두 번째 투여 후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증상이 많이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세 번째 투여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투여하지 못하였다.

IV. 결론

급격한 폐경 이후에 背痛이 심해져서 내원한 환자를 진단 후, 肝氣鬱結로 辨證하여 加味逍遙散 加味方을 처방한 결과, 유효한 효과를 보였으

므로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서울, 칼빈서적, pp176-183, 309, 716-765, 1997
2. Kathleen I. Macpherson. Menopause as Disease. The social construction of a Metaphor, A.N.S, 3(2):92-113, 1981.
3. 이세나 외. 갱년기장애에 활용된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의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2(4):046-064, 2009.
4.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행림출판사, p22, 1980.
5. 한의부인과학고재편집위원회. 韓方婦人科學. 서울, 정담, pp221-248, 2002
6. 이경섭 외. 갱년기 장애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6(1):81, 1993.
7. 葉天士. 傳青註女科. 상해, 인민출판사, p35, 1984
8. 陳自明. 婦人良方大典. 상해, 인민출판사, p60, 1985
9. 송병기. 韓方婦人科學. 서울, 행림출판사, pp32-33, 194, 196, 1980.
10. 신태양사 편집국 백과사전부. 원색의료 대백과사전. 서울, 신태양사, pp168-171, 1994.
11. 데이비드 R. 골드만 . Complete home medical guide. 서울, 도서출판 정한, p36, 2003.
12. 中山醫學院. 中醫方劑學選講. 廣州, 廣東科技出版社, pp173-81, 1983.
13. 金在瑩 외. 丹梔逍遙散에 關한 文獻的考察.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 論文集, 7(2):531-51, 1999.
14. 楊恒茂 외. 實用中醫婦科方藥學. 蟾蜍, 蟾蜍科學技術出版社, pp44-6, 119, 121, 125, 136, 138, 175, 239, 1983.
15. 何國樑. 實用婦科方劑. 廣州, 廣東科技出版社, pp92-3, 1997.

16. 遊士勳 외. 實用中醫方劑學. 台北, 藥群出版社, pp133-5, 1983.
17. 김상찬 외. 方劑學. 서울, 도서출판 영림사, pp157-159, 1999.